

도, 농기계 임대로 일손부족 해소

신규보급·보관창고 신축·여성친화형 기계 보급·노후장비 대체·농작업 대행 서비스 등 통해

전북도가 도내 농촌지역 인력난을 극복하고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펼치는 농업 기계화 정책이 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등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도가 농촌일손부족을 해소기 위해 시행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를 임대해 사용함으로써 도내 농가들이 비싼 농기계 구입비용은 물론, 유지비용 및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 도는 올해 기존 6,033대의 농기계 외에, 52종 139대의 농기계를 신규 보급하고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에 7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맞춤형 임대사업으로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도 확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도내 농업인의 고령화로 여성인력이 농촌 일손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점에 착안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이 사업의 주요 농기계는 여성도 손쉽게 조작할 수 있는 관리기(5마력 이하)와 동력 이식기, 소형 트랙터(60마력 이하), 동력운반차, 부속작업기 등으로 현재 4개 시군 7개소에서 보급하고 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인 '농기계 노후장비 대체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9억원의



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질 전수조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국장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LWR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질 전수조사와 안전성 검증 설명회'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LG생활건강 등 80여개 생활화학제품 주요 생산·수입 업체와 이마트 등 10여개 유통사가 참여했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국장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LWR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질 전수조사와 안전성 검증 설명회'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LG생활건강 등 80여개 생활화학제품 주요 생산·수입 업체와 이마트 등 10여개 유통사가 참여했다.

도비를 투자한 데 이어 올해는 7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39종 105대의 농기계를 구입해 9개 시군에 보급했다.

이어 고령화된 농촌에서 농촌의 지역 공동체 붕괴를 막기 위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도 도내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농작업 대행 서비스'는 지역농협이 도로부터 농기계를 지원받아 고령·여성농·귀농인 등이 소정의 수수료로 농작업을 대행

받는 서비스로 지난해에는 5개 시군 6개 농협이 참여한데 이어 올해는 2개 농협이 추가로 참여했다.

도는 농업 기계화 정책을 펼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판단해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농기계가 일반도로를 주행하는 일이 빈번해짐에 따라 야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등화장치 부착사업도

무료로 추진 중에 있다.

도 관계자는 "이제는 비싼 농기계를 소유가 아닌 필요할 때만 빌려쓰는 농기계 임대 시스템을 정착시켜 이를 도내 농업 경쟁력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현재 발자물 기계화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 발자물에 많이 사용되는 소형 농기계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야간·휴일 시간제보육서비스' 시행

전북도, 시범사업으로 7월부터 익산센터에서

전북도가 '야간·휴일 시간제보육서비스' 시범사업을 오는 7월 실시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야간이나 휴일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지난 2014년부터 도입된 시간제보육서비스는 6~36개월의 가정양육아동을 둔 부모만 이용가능하고 서비스 이용료 4000원(1시간 기준) 중 기본2000원, 맞벌이부부는 3000원씩 지원받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시간대는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 정때, 부득이한 사유로 야간·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부모는 실제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이번 야간·휴일 시간제보육서비스 시범사업 시행으로 문제점을 일부 해소하게 됐다.

야간 시간제보육서비스는 오후 10시까지, 휴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온라인 및 전화신청으로 이용가능하며 이용단가는 주간과 동일하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익산 육아종합지원센터인데, 일시보육 수요가 많은 곳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성과결과에 따라 서비스 제공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전북우정청·농진청, '농산물 판로 활성화' 노력

'전북 달팽이장터' 대표 농산물소프 브랜드로 육성기로

전북 농산물 판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북우정청과 농진청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25일 전북우정청과 농진청은 전북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해 개설한 '전북 달팽이장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전북의 대표적인 농산물소프 브랜드로 육성하기로 합의했다.

전북 달팽이장터는 지난 4월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개설됐으며, 현재 26개 업체의 30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이날 라승용 농진청장은 "농

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뛰어난 농업기술을 생산능가에 제공해 안전성과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상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수 전북우정청장도 "농진청의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전북농산물의 상품화를 지원하고 다양한 판매채널을 확대하겠다"면서 "농가들의 농산물 판매에 우체국이 가장 효과적인 경제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송하진 도지사, 미국서 탄소 마케팅 나서

워싱턴 주 시애틀 보잉사 방문 전북 탄소 항공부품 투자유치 설명

정부의 탄소 소재 융복합기술개발·기반조성지원법(일명 탄소법) 제정으로 힘을 얻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여세를 몰아 탄소산업 해외 마케팅에 나섰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25일 미국 시애틀에 있는 보잉(BOEING-항공기 제작사)을 방문, 탄소의 항공기 적용사례를 시찰하고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송 지사의 미국 방문은 지난 19일 탄소법이 제19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 극적으로 통과된 뒤 6일만이다.

송 지사는 보잉사 스캇 캠펠(Scott Campbell) 부사장과 제임스 쇼우(James Shaw) 국제 담당 이사 등을 만나 정부의 탄소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또 지난해 정부로부터 발표된 '탄소 융복합 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을 골자로 전북도의 탄소 산업 경쟁력을 강조했다.

송 지사는 이어 전북 항공 기업인 이스타항공(EASTAR)의 보잉사 기종의 구매 의사를 직접 전달했다.

또 전주에 소재한 탄소 항공 부품 회사인 데크에어(DECK Air)의 한 단계 높은 수준(4차에서 2~3차로)의 부품 산업 참여 의사를 전달하며 보잉사의 투자 관심을 이끌어냈다.

송 지사는 "전북은 대한민국 탄소 산업의 뿌리"라며 "부품 소재 연구와 생산에 보잉사와 전북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잉사가 있는 워싱턴 주는 전북도와 20년간 자매결연 관계를 맺은 관계"라며 "탄소 항공 부품 산업 분야 투자에 전북을 선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 지사는 특히 전라북도 보잉사 인력의 보고인 워싱턴대학교 '탄소 기술 공동 연구 개발 협약식'(MOU)을 가질 것이라 소식을 보잉사에 전달했다.

송 지사는 오는 10월(5~7일 3일간)에 열리는 전북 국제탄소축계에 보잉사의 참여를 요청했다.

스캇 캠펠 보잉사 부사장은 "송 지사의 보잉사 방문을 적극 환영한다"며 "전북이 대한민국에서 탄소 산업에 선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놀라

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타의 항공기 구입과 기업의 보잉 참여에 감사한다"며 "보잉은 앞으로 탄소 분야 개발에 있어 전북도와 산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10월에 열리는 국제 탄소 축계에 보잉사를 초청해주시는 것에 감사한다"며 "꼭 참여토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전북도지사의 미국 보잉사 방문에는 미국 워싱턴주 교환 근무에 나 서고 있는 전북도 박형배 국장을 비롯 이원택 대외협력국장, 전대식 탄소 산업과장과 김병하 탄소 정책팀장 등이 배석했다.

또 김현 KCTECH(탄소기술연구원) 본부장과 신현규 실장 등이 탄소 산업 전문가로 참여, 보잉사를 상대로 전북의 탄소 현황을 설명했다.

한편 송 지사는 오는 26일 미국 워싱턴주와 20주년 자매결연 축하 기념식을 미국 워싱턴주 청사(시애틀 소재)에서 가질 예정이다. 정영수 기자

전북도, 해수욕장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전북도가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안전사고 제로화' 목표를 세우고 해수욕장 개장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개장 예정인 도내 해수욕장은 군산 선유도와 고창 구시포, 부안 변산 등 총 8개소이다.

안전관리를 위해 174명의 안전요원을 해수욕장에 배치하고, 해경과 경찰·소방서·주민 합동으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 해수욕장마다 심폐소생술과 무전기 사용요령 등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해 역량을 강화하

기로 했다.

이밖에 위험지구 표지판과 수상오토바이, 구명보트 등 장비 등을 구입하고, 해파리 쓰임 방지시설 및 수질 조사를 위해 해수욕장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온·오프라인과 블러그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북도 해양수산과 김대근 과장은 "철저한 사전 준비로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도내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주간(주말), 야간면접 특강
스피치·시낭송·면접·웃음치료·매직(마술)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강의특징〉
① 40년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강의
② 저렴한 교육비로 주1회 교육
③ 각종대회 출전지도 (대통령상 3회 국무총리상 2회 배출)
④ 각 분야 전문 강사가 지도함
⑤ 차량운행(유치부,초등부)함

〈김양욱 전담교수 소개〉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면접) 전담교수
• 면접지도 전북1호 강사
• 한국유변인협회 전북회장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리더십 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 "365인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사)한국유변인협회, (사)한국유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 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한국 스피치 & 면접 아카데미

위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번지(시청옆 대우빌딩 건너편 5층)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